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DECEMBER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0



## Sunset Valley Golf 그리고 Alexis Steakhouse

2023년 시즌 마지막 골프대회가 Daylight Saving Time 이 끝나는 11월 2일 Sunset Valley 골프장에서 27명 회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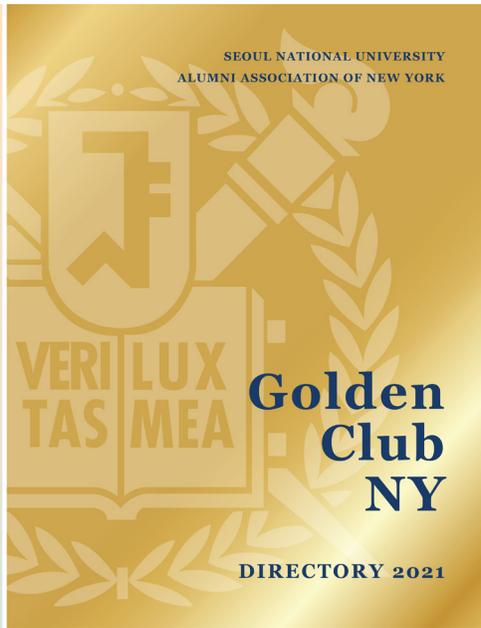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1시간 반 가량 frost delay 가 있다고 해서 행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을까 우려했으나, 아침시간 예약을 취소한 골퍼들이 많아 예정보다 20분 늦게 진행하여 해 떨어지기 전에 모두 끝마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또한 Sunset Valley 골프장은 Fort Lee에서 24 마일, 30분 거리에 있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이점이 있고, Blue, White, Gold, Red tee 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Advanced tee 사용자가 여성

tee를 함께 사용할 필요도 없어서 좋았다.

이날 저녁은 Clifton에서 'Alexis Steakhouse & Tavern'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태(법대70입학) 동문의 특별 배려로 식당 2층 별실에 Beef Steak Buffet 를 마련하여 푸짐한 음식에 맥주, 와인을 원하는데로 마실 수 있었으며,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싸주어 한 봉지씩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주로 이용했던 중국부페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만족하는 회원들의 구미와 분위기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뉴저지 서부지역 골프장에 예약할 경우에는 김기태 동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홍종만 (공대64)



## 2024년 Directory 발간

지난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4년도 신규 Directory(인명록)를 발간합니다. 새로운 Directory는 지난 3년간 회원들의 변동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작고하신 분들과 개인 사정에 따라 클럽 활동을 중단한 회원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 그동안 새로 입회한 회원들의 정보와 지난 3년간의 활동 내역을 추가하게 됩니다. 지난 2차에 걸쳐 제작되었던 Directory의 database에 더하여, 김정필 사무총장이 회원 명단 정비와 3년간의 연도별 주요 행사 기록과 사진을 보완하며, 손대홍 회원이 Designer와 협의하여 편집과 인쇄과정을 주관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

### Directory 발간을 위한 요청 사항

- 기존 회원께서는 전화번호, Email, 집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된 정보를 김정필 사무총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고, 개인 인명록에 새로운 사진 수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사무총장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Directory 발간 이후 입회하신 신규 회원의 경우, 수록할 인적 사항과 사진을 김정필 사무총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 사항: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생년월일, 전화, Email, 자택주소
  - \*\* Profile 사진: Passport 규격의 개인 사진

### Directory 발간 일정

- 회원 명단 확정 및 사진 등 수집 마감: 2023년 12월 31일
- 최종 편집 마감: 2024년 1월 31일
- 인쇄 완료: 2024년 2월 28일
- Directory 회원 배부: 2024년 3월 23일(신년 교례회)

Golden Club Directory는 회원 간 상호 이해와 친목 도모에 도움이 되며, 클럽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Directory는 동문들에게 Golden Club을 소개하고 참여의 필요성을 고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 총회 및 송년의 밤

동창회에서 2023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시: 2023년 12월 2일 (토) 오후 4시  
 장소: Double Tree Hotel (201) 461-9000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참가회비: 동문본인 \$120, 가족 \$100  
 문의: 동창회장 연영재 (201) 233-7108

## 마지막 골프대회 우승자 곽선섭 회원의 우승소감

지금까지 워낙 못치다 요번에 예사롭지 않게 1등상을 타게 되어, 늦판에 깜짝 뜨는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험담을 하는 동문도 있으나 나로서는 오랜만에 어렵게 이룬 인간승리, 갑자기 star가 된 기분이다. 내 특유의 조금(?) 이상한 swing style 에다 조금 오래 걸리는 address 시간 등을 참고 봐 주신 같은 sum 의 성기로선배님, 김광현 선배님, 우규환선배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너무 잘쳐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내년 season 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입회를 환영합니다.

이름: 윤재욱 Jae Oak Yoon  
 학번: 농대60  
 전화: 203-246-9236  
 email: jaeyoon@gmail.com  
 주소: 75W Brrothers Dr  
 Greenwich, CT

이름: 이상원  
 학번: 의대 56  
 전화: 413-237-5379  
 email: pohang1937@gmail.com  
 주소: 1512 Palisades Ave 2H  
 Fort Lee, NJ 07024



11월 2일 Sunset Valley Golf에서 최선을 다짐하며



박상원 윤선구 권정덕 이상원 박기환 김한중 한태진



입상자 일동-성기로 한용희 홍예경 계동휘 광선섭 홍종만



Close pin: 오순문 김한중 홍예경 계동휘



이준행 회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11월 12일 동창회 음악회에 참가하고 연주자와 함께



11월 17일 낙상사고후 회복한 진봉일 선배부부와 함께 산수갑산에서



11월 5일 Fall Festival에 손녀들과 함께한 김정필 부부

## 나와 아내

■ 진봉일 (공대50)

나와 아내는 부부이며 일심동체다 지난 3년 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며 밤에는 동침하니 100% 동거 동락하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아내와 남편이 많은데 우리 부부는 둘 다 건강하게 생존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작년 11월에 시멘트 바닥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다 노년에 들어서 한 사람이 다치면 두 사람이 같이 환자가 된다. 아내는 1년 동안 일인 이역을 했는데 집사람이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위로해 주고 싶어 이 글을 쓴다.

나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여학생들 환호 속에 5년 세월을 훌쩍 보냈다. 그 후 성동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내전공으로 돌아와 근무하다 1974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 메릴랜드를 거쳐 뉴욕으로 왔고 주정부의 이중언어 교사 (일본어) 마스터 학위를 받은 후 다음 Elmhurst에 있는 New Town HS에서 근무했다 이중언어 교사로 한국에서 새로 오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부모들을 도와주었다. Woodside PS 11 과 Flushing IS 237중학교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은퇴 후에는 하는 한인들이 많이 가는 Clearview 골프 코스에서 Ambassador라는 칭호를 받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거의 프리로 골프를 쳤다.

나의 아내는 디자인 계통에서 일을 시작하여 열심히 뛰어서 성공했다. 아내의 성격은 철두철미하여 하루 일과가 바쁘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1시간 동안 한국일보를 비롯 로컬 신문을 보고 TV 는 채널 50 Food채널과 채널 51 홈가든을 시청해서 살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아내의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다. 우리 부부는 황혼이 벌써 지났지만 세븐업(7 UP)을 하면서 신혼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다

1. **Clean Up** 자신의 몸과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2. **Dress Up**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늘 가꾸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3. **Cheer Up** 밝고 유쾌한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4. **Show Up**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꾸고 주변에 활달한 모습을 가능하도록 보인다
5. **Pay Up** 지인과 모임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갑을 먼저 열어서라
6. **Give Up** 자신이 못 할 일과 안 되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빨리 포기하라
7. **Shut Up**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 힘써라



독립선언서 삼십삼인 중 한 분인 한용운 님이 조국을 위해 쓴 시를 이번에 나를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바치면서 글을 마친다

### 군말 (한용운)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환의 님이 봉비이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앞뜯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너의 그림자인이라  
 나는 해 저문 벼판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 양동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나는 곧 당신입니다



##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으며

■ 이행순(미대 60)

정원의 스프링클러를 단느라 순식간에 잔디 위가 짙은 안개로 덮였다. 안개 속을 들여다보면서 급하게 달려가는 2023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머리 속을 빠르게 지나간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그리고 슬픈 일들 --

30년 살던 Norwood 집은 마당이 무척 넓었다. 옆집과의 거리가 멀어 사람의 말소리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쩌다 잠간 눈에 띄면 Hello!! How are you? 모두 영어권. 사슴 토끼 다람쥐 온갖 예쁜 새들 -꽃도 예쁘게 피고 심은 상추도 아침엔 따 먹어야지, 웬걸--도둑 맞은 듯 보이지도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너무 속상했던 일들, 너무도 맑고 예뻐 보이던 사슴의 눈도 마주치면 절로 미운 마음부터 들었다.

Palisades Park로 이사온지 4년이 되간다. 이젠 사슴도 없고 마당도 적으니 예쁜 꽃들도 심고 하겠다는 다짐은 생각뿐, 우리집은 옆이 park라서 사슴, 다람쥐, 새들도 여전히 많고 각각 다른 색의 들고양이까지 제 집 마당 인양, 드나들며 앉아서도 있고 누워서 자기도 한다. 다만 이곳에 오니 다른 점 -- 하루 종일, 아니 일년 내내 전혀 한마디 영어를 안해도 불편함이 없다. 가까운 거리에 은행, 마켓, 식당, 미장원, 반찬가게, 가스 스테이션, 철물점, 빵집 등등 -- 그러다 보니 신문도 한국신문, Netflix, OnDemand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도 모두 한국말로 즐길 수 있고 -- 만일 손자 손녀나 사위들까지 한국말로 대화가 통했다면 영어 한마디를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생활이다.

미국 직장에 다닐 때는 그들과의 대화 중에 소외됨을 면하려고 기차 출퇴근할 때마다 아침 배달된 뉴욕 타임스 headline 뉴스라도 읽어야 했고 바로 나온 bestseller 도 열심히 읽으려 노력했고 새로 나온 영화도 봐야 된다는 강박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Retire한 후 -- 백수가 고단해서 몸살이 난다는 말대로 늘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루도, 일주일도 급하게 달려간다. 가끔은 이런 생산성 없는 나날을 보내도 되나? 잠간 죄의식(?)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 나이 들어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이니 감사하며 즐겨야겠다. 시험공부를 안 해도 되고 눈 비가 온다 해도 출퇴근 걱정 없으니 노년만의 큰 상금 아니간---

올해는 단풍이 무척 곱다는 생각을 했다. 우린 예쁜 단풍을 너무도 즐기지만 나무 자체는 아프고 괴로운 과정이란단다. 난 전혀 다른 생



늦가을 굳건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조다리(사진-이행순)

각이다. 연한 초록으로 시작해서 예쁜 꽃들로 듬뿍 사랑을 받고, 짙은 녹색을 뽐내다가 각종 화려한 단풍으로 변장을 하고 흰 눈꽃을 맞기 위해 쪽 뺀은 동치에 가지런한 가지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겨울나무 -- 봄이 되면 다시 예쁜 모습을 보이며 사랑을 받으니까 -- 가끔 인간에게 일생이 아닌 두생애가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상상해 본다. 아쉽게도, 유년기, 소년 시절, 청년기, 장년, 중년, 노년, 어느 시기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느 나이라도 나름대로 행복과 풍요로움이 있다면 감사하며 만족하면 된다.

우리 골든 클럽 멤버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남은 생을 활활 태우며 열심히 살아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2023년 이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엔절프니 (느린 나의 행복편지)중에서-

**사랑의 시계는 모두 같습니다만  
사람들 마음속의 시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마음의 시계를 늦추다면  
행복은 좀 더 길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족과 함께 즐기고 돌아온 낭만의 도시 파리

■ 김병순 (사회대 82)



Palais Garnier

2023년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한 우리 가족여행은 11/6일부터 11/12일 까지 6박 7일간의 파리였다. 나와 와이프는 1994년 여행 후 revival 여행이었고 아들은 처음 여행이었다. 항공기, 호텔은 직접 예약을 하였고 Palais Garnier, Louvre Museum, Orsay Museum 및 Versailles Palace는 별도의 tour를 예약하였다. 남는 것은 사진이라는 생각으로 파리의 야경을 구경하면서 사진전문가들이 찍어주는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tour도 별도 예약하였다. 출발 비행은 월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파리에 화요일 오전 일찍 도착하는 것이었다. 호텔 check-in후 점심식사를 하고 Palais Garnier를 관람하였다. Palais Garnier는 1861-75년 나폴레옹3세 시절에 건축되어 현재 오페라 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건축 내외부가 화려한 그림, 조각 및 장식이 되어 있었고 오페라에 쓰이는 옷도 직접 제조하는 곳이 있고 오페라에서 사용 후 창고에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 한다.

수요일 오전에는 Louvre Museum을 관람하였다. 소장하고 있는 arts의 수가 너무도 방대하여 오전 tour를 통하여는 전체의 arts 중 1/30 정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guide가 설명하였다. Louvre



Louvre Museum

Museum에서 첫번째 관람은 과거 파리의 하수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는데 루이 왕조시대 때 파리 도시 정비를 하기 전에는 도로의 중앙이 낮게 되어 있고 주민의 오물들을 도로에 모두 버리게 되고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도시정비를 하면서 도로의 갓 쪽을 낮게 하여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 때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약탈하여 온 수많은 이집트 유물들을 보았다. 이집트 유물에 있는 고대 상형문자를 표의문자가 아닌 표기문자로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었고 유명한 고고학자들 중에 불란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서양사람들이 이집트 문화/문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세계고대문명 중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로마 문화가 또한 그 고대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스/로마 문명이 서양문화의 원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그린 그림의 상당 부분은 성화였다. 예수님 탄생, 세례 요한 및 기독교 성인들의 그림이 많았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았다. 옛날에 그림을 그리는데 도구나 금가루나 향료 등 재료의 값이 상당히 고가였기에 성화/성인이나 신



Orsay Museum

정도는 그려야 그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유화를 위한 물감 등이 생선이 되면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풍경화 등 다양한 그림이 나오게 되었다. Louvre Museum의 대표적인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정점으로 감상하고 박물관을 나왔다. 모나리자의 위대함은 붓 칠을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하였으나 물감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얇은 덧 칠을 통하여 은은하면서 섬세한 표정 등을 잘 표현하였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그런 그림은 다른 화가가 다가 갈 수 없는 경지에 있기에 이 지구 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목요일 오후에는 Orsay Museum을 관람하였다. 인상파 화가들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다. 드가, 마네, 모네, 세잔느, 르누아르, 고흐, 고갱 등의 화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상파 화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salon이라고 하는 국선전에서 그들의 그림이 잘 당선되지 못했다고 한다. 신고전주의 등의 화가들 입

장에서는 그림을 그리다 말았다 내지는 너무 투박하거나 가볍다 등의 평가였기 때문이었다. 나와 와이프는 개인적으로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세잔느와 르느와르 그림이 다른 장소로 임대되어 나가서 볼 수가 없어 상당히 아쉬웠다. 요즘 Museum 측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목요일 저녁에는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야경을 구경하였다. 2019년 대화재로 들어가 볼 수 없었던 Notre-Dame 대성당은 세느강 너머에서 복구 공사하는 장면만 보았다. 전문 photographer가 찍어 주는 인생사진은 Louvre Museum의 피라미드 탑과 Eiffel Tower를 배경으로 했다. Eiffel Tower를 1889년 처음 건축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파리 중심부에 철덩어리 탑을 세운다는데 반대가 심했으나 그를 무릅쓰고 완성하여 파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Eiffel Tower 효과라는 표현이 탄생하게 되었다. Louvre Museum에 유리 피라미드 탑을 세울 당시에도 현대적인 형상이 Louvre Museum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대문명의 상징으로 프랑스 문명의 뿌리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 존재가치가 상당하다.

금요일은 하루 tour를 하게 되었는데 고흐의 흔적이 많은 오베르쉬르 우아즈와 Versailles 및 Montmartre 언덕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Auvers-sur-Oise에는 고흐의 무덤이 있고 고흐 그림의 배경이 되는 여러 장소를 볼 수 있었는데 고흐가 자살이 아닌 사냥꾼의 유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Versailles 궁전은 화려한 장식과 엄청난 규모의 대운하에 압도당하는데 많은 사람의 인력 동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프랑스 황실의 힘을 느끼게 한다. 궁전안의 예술품들은 대부분 왕족



들의 그림이나 조각품이었다. 외국 사절단들이 반드시 거처하게 하여 왕의 위엄을 과시하였다는 거울의 방을 구경하였는데 예전에는 거울 만들기가 어려워 값비싼 물품이었기에 한 벽면이 거울로 채워져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상당히 주었을 것이라고 납득이 갔으나 흔한 물품으로 거울을 대할 수 있는 현재 시각으로는 그 위용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만 천정과 다른 벽면에 장식 및 그림들은 훌륭하다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그림은 작가인 다비드가 정치인과 영합하여 성공한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 주며 교황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폴레옹 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요일은 개선문과 Champs-Elysees 거리를 구경하고자 하였으나 11/11일이 Armistice Day(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라 개선문에서의 기념행사로 인하여 하루 종일 개선문 주위가 봉쇄되고 지하철역도 그냥 통과하는 바람에 개선문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멀리서 할 수밖에 없고 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주 힘들었다.

프랑스에 왔으니 프랑스 요리를 맛보지 않을 수 없어서 저녁에는 Epicure 등 고급 레스토랑들을 갔었다. 고급 식당들이어서 서비스는 정말 훌륭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입에는 짜다는 인상이 강하여 맛 평가가 어려웠다. 나중에는 해산물 위주로 주문하여 훌륭한 맛을 볼 수 있었고 요리는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요일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였는데 security check와 출국 심사 시간이 너무 길어 항공기를 놓칠 뻔했는데 항공사에서 긴급구제절차를 취하여 겨우 탑승하였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Paris 시내 곳곳의 많은 지역에서 공사하는 모습이 다소 흠이었고 금요일부터 감기에 걸려 고생은 하였지만 우리 가족들이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의 추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고 자평한다.

회원 명단 (116명 / 2023-11-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윤선구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최한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창우	최학주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정수일	한응오
곽승용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태진/
구달희	김종울	송근숙	이상원	조승자	안응희
권문웅	김창수	송현자	이승준	정해민	허응웅
권정덕/	김충정	송학린	이대연	조상근	허유선
홍선경	김치갑	송혜순	이대영	주상선	홍사만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영범	주재양	홍정표
권태전	김한중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영천	김현중	신응문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광수	김용면	오순문	이종구	최종화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오용호	이종대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종석	최병우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준행	최수용	
김문언	박준구	유무영	이준희	최순채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90명 / \$9000/2023-11-25

강교숙	김병순	민준기	송학린	이상무	조달훈	한응희
강에드	김우영	박기환	송혜순	이승준	조승자	허응웅
강영선	김익성	박상원	신두식	이영범	진봉일	홍선경
곽선섭	김정필	박희병	신진식	이용대	천병수	홍정표
곽승용	김창수	배상규	오순문	이전구	천종화	홍종만
권영대	김치갑	성기로	오용호	이종대	최병우	홍예경
권정덕	김태일	손경택	오인석	이종석	최수용	
홍선경	김한중	손갑수	우규환	이행순	최순채	
권태전	김현중	손대홍	윤상영	이흥빈	최준희	
계동휘	권문웅	남종현	윤선구	임도혁	최철용	
김광현	김영천	손옥화	윤재욱	임호순	최한용	
김동건	김상만	송용길	윤현남	정수일	한영수	
김문경	김종울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한응오	
김문언	김충정	송근숙	이대영	주상선	한태진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9명 / \$13,300/2023-11-25)

강에드 200	김창수 3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최한용 1000
권정덕 300	김치갑 80	오순문 200	임호순 300	한태진 500
김영천 300	김한중 200	오용호 300	정해민 1000	홍종만 1000
계동휘 500	성기로 500	우규환 200	최수용 1000	
김광현 200	손경택 1500	윤선구 200	최순채 100	
김문경 200	송학린 500	윤현남 500	최준희 400	
김종울 200	신두식 200	이전구 1000	최철용 2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박상원 200	이승준 200	최한용 200	이상원 200
이영범 200	윤상영 200	김충정 200	윤재욱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30,000/2023-11-25)

이준행 3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11-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28명참가)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NJ (30명 참가)
8월	16일(수)	Zoom Seminar - Well Dying (25명 참가)
	17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70명 참가)
	31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NY (28명 참가)
9월	21일(목)	Golf Outing- Split Rock Golf Club (27명 참가)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Split Rock (34명 참가)
11월	2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27명)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Fort Lee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언 (공대66)
- 김승호 (공대71)
- 신진식 (농대57)
- 오용호 (의대66)
- 최구진 (약대54)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